6. 내가 집안의 어른이라면

무릇 집안의 어른으로서 집에 거처할 때는 삼가 禮法(예법)을 지켜서 아내와 자식과 집안 식구들을 거느려야 한다.

食口(식구)들에게 역할을 나누어 일을 맡기고, 일이 성공하기를 바란다.

재물의 씀씀이를 절약하게 하고, 收入(수입)을 생각해서 支出(지출)*하며, 재물의 많고 적은 것에 맞추어 옷과 飮食을 마련하며 家庭(가정)의 크고 작은 행사에 비용을 댄다. 모두 하나같이 격식*과 禮法(예법)에 맞게 하되, 쓸데없는 비용을 줄이고 사치와 낭비를 금지하여, 만약의 비상시를 대비해 재물을 남겨 두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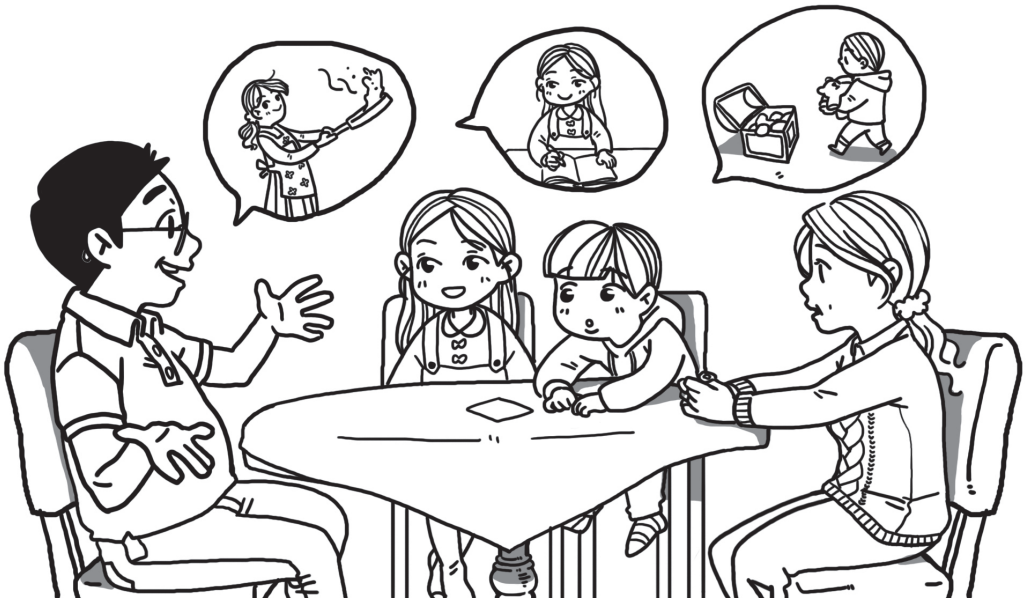
君子(군자)*는 道理(도리)*를 근심할 것이요 가난을 근심해서는 안 된다. 만약 집이 가난하여 살아갈 수가 없으면, 비록 가난을 해결할 방법을 생각하더라도, 재물을 많이 쌓아 두고 잘 사는 큰 부자가 되기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 배우는 자는 富貴(부귀)를 가벼이 여길 줄 알아야 한다.

만약 가난 때문에 마음이 움직여 義로운 일을 행할 수 없다면 學問(학문)은 어디에 쓰겠는가? 무릇 물건을 주고받을 때에는 반드시 義로운지 義롭지 않은지 생각해서 받든지 말든지 해야지, 털끝만큼이라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격몽요결』「거가장」)

*收入(수입)과 支出(지출) : 수입은 돈이나 재물을 벌어들이는 것이고 지출을 그것들을 쓰는 것
*격식 : 때와 상황에 맞는 일정한 방식
*君子(군자) : 덕을 닦아 인격을 완성한 사람
*道理(도리) :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길

예쁘게 색을 칠해 보세요.

집안 어른의 역할



가족들의 역할을 정해준다

재물의 사용을 지휘한다

비상시를 위해 재물을 절약한다

의롭게 주고받는다

본문 해설

『격몽요결』의 이 내용에 대해서 요즘 어린이들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모두 성공해서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또 일부 어른들은 그렇게 성공하라고 가르치기도 하지요.

또 집안의 어른으로서 자식들을 거느린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아내를 거느린다는 말도 그렇고, '도리(도덕)를 근심해야지 가난을 근심해서는 안 된다'는 말도 그러하거니와 큰 부자는 물론이요, '배우는 자는 富貴(부귀)를 가벼이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은 더욱 그러할 것 같아요.

이런 율곡 선생의 말을 이해하려면 좀 어려운 말로 당시 조선 중기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사실 어떤 글이든 작품이든 그것이 만들어질 당시의 배경을 갖고 있거든요.

율곡 선생이 이 책을 쓸 당시 선비들의 정신을 지배하는 철학이 있었는데, 그것을 性理學(성리학)이라고 불러요. 성리학은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말할 수는 없고, 간단히 말하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어 잘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인간답게 사느냐 하는 문제에 관심이 있었어요. 바로 孔子(공자)와 孟子(맹자)의 생각을 이어 중국 남송 때 朱子(주자)라는 분이 완성한 학문이지요.

율곡 선생은 이 성리학을 더 발전시킨 분인데, 이렇게 사람이 예법에 맞게 검소하게 살면서 재물에 욕심내지 말고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특별히 君子(군자: 덕을 쌓아 인격을 완성한 사람)가 되려고 학문하려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선생은 일찍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 개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선조임금께 자주 올렸는데, 이것은 백성들이 부유하게 잘 살기 위해서였어요. 백성들이 재물을 멀리하고 부자가 되는 것을 가벼이 여기라는 뜻이 결코 아닌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도 안심하고 부자가 되어도 좋아요. 다만 부자로서 덕과 인격을 쌓아 남의 존경을 받는 일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에요.

생각해 볼 문제

1. 우리 집에서 다음의 역할은 누가 맡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사람을 써 보시오.

   가. 가정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사람 :

   나. 가정에 필요한 돈을 관리하는 사람 :

   다. 식사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 :

   라. 집안의 청소를 맡은 사람 :

   마. 빨래와 설거지를 자주하는 사람 :

2.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가정의 중요한 일을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 )

   ① 내 마음대로 결정한다.

   ② 아내와 함께 의논하여 결정한다.

   ③ 가족회의를 열어 모두의 의견을 참고하여 아내와 의논해서 결정한다.

   ④ 아내가 하자는 대로 결정한다.

3. 누가 내게 까닭 없이 선물을 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① 즐거운 마음으로 받는다.

   ② 까닭을 알아보고 의롭지 않으면 정중하게 거절한다.

   ③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마지못해 받는다.

   ④ 작은 선물이라면 받아도 괜찮다.

4. 옛사람들은 재물을 모아 부자가 되고 신분이 귀하게 되는 것보다 도리를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여러분은 도리를 지키는 것과 부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면 무엇을 고르겠습니까?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가. 선택한 것 :

   나. 그 까닭 :

한자·한문 익히기

1. 다음의 한자를 익혀 봅시다.

뜻	재물	물건	가난할	집	부유할	귀할
한자	財	物	貧	家	富	貴
음	재	물	빈	가	부	귀

2. 한자어의 음과 뜻을 알아봅시다. (　) 속에 알맞은 음을 써 보세요.

가. 財物(　　) : 돈이나 그 밖의 값나가는 물건

나. 貧富(　　) : 가난함과 부유함

다. 富貴(　　) : 재산이 넉넉하고 지위가 높음

3. 다음 서로 반대되는 뜻을 가진 한자를 줄로 이으시오.

(1) 貧 ●　　● 入

(2) 出 ●　　● 富

(3) 長 ●　　● 幼

4. 다음 한자어를 읽어 보세요.

家長(　　)　親家(　　)

5. 다음 □ 속에 한자의 음을 써 넣고, 큰 소리로 여러 번 읽어 보시오.

가. 君子憂道(군□우□)요 不當憂貧(부당우□)이니라 : 군자는 도리를 근심할 것이요 가난을 근심해서는 안 된다.

나. 君子(군□)는 富貴不能動其心(□□불능동기심)이라 : 군자는 부귀가 그 마음을 흔들 수 없다.

방공의 유산

『소학』에 나오는 옛 이야기예요.

옛날 중국 한 나라 때 방공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는 벼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성안에 들어가 살지 않고 시골에서 아내와 함께 농사짓고 살았어요. 그리고 방공의 夫婦는 서로 손님처럼 공경하였어요.

하루는 형주라는 지방에서 자사의 벼슬을 맡고 있는 유표라는 사람이 그를 찾아 왔어요. 아마 작은 벼슬자리라도 주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마침 그 때 방공은 밭두둑 위에서 밭 갈던 일을 멈추고 그를 맞이하였고, 그의 아내는 그 앞에서 묵묵히 김을 매고 있었어요.

그때 유표가 방공에게 말했어요.

"선생께서 고생스럽게 시골에 살면서 관직과 녹봉(관리에게 주는 봉급)을 좋아하지 않으시니, 이 다음에 무엇을 子孫에게 물려주시렵니까?"

이렇게 말하니, 방공이 말하기를

"세상 사람들은 모두 위태로운 것을 자손에게 물려주지만, 이제 나는 홀로 안전한 것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비록 물려주는 것이 남과 다르지만, 물려줄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하니, 유표가 탄식하며 가버렸어요.

관직이나 녹봉은 사람마다 탐하고 바라는 것이니 경쟁의 대상이 되고 책임이 따르게 되므로 위태로운 것이에요. 옛날에는 관직생활을 잘못하다간 목숨이 위태로울 때가 많았지요. 그러나 농사일은 부지런히 일하기만 하면, 가족을 먹여 살리고 마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지요. 그러니 방공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나친 욕심보다는 사람의 도리를 지키며 차라리 농사지으며 사는 것이 참된 행복으로 여겼지요.

관련 인성 가치	책임 정직